



宗說

시기猜忌와 배려

지난날 누가 배가 아프다 하면 사촌이 손을 샀느냐고 응수했다. 우리나라 사람에 그만큼 시기猜忌와 질투嫉妬가 강해서 생긴 속담이다. 시기는 경쟁심에서 말미암으니, 이것이 또한 없어도 곤란하다. 국제화 시장경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다면 어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러나 시기와 질투란 남이 잘되는 것을 시샘하여 미워하는 것인지라 저보다 나은 자를 파괴하려는 본성이 뒤따라 나쁜 버릇이 되며, 말미암아 갈등과 해독을 유발한다.

나는 일본에 있을 때 저들 지식층에게서 “한국인은 질투와 시기가 강해 둘만 모이면 서로 잘났다고 우겨 단합과 타협이 어렵다. 일제는 그같은 국민성을 식민통치에 십분 활용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과거에 ‘식민지 조선을 논하다’라는 저서에서 다카하시도루高橋亨은 “조선인은 관용과 위엄의 미덕이 있고 순종적이고 낙천성이 있으나, 사상적인 종속성과 당파심, 공사公私의 혼동과 고착성 등의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27년에 조선총독府朝鮮總督府에서 낸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이라는 책에서는 “선량하고 정조관념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나태하고 방탕하며 표리表裏가 부동不同하다”고 하고 있다. 근년 박태원朴泰源이라는 가명인이 일본에서 낸 ‘추한 한국인’이란 책에서는 우리 국민성이 크게 비하되었다. 조선조말 황폐한 한국사회의 비극은, 심각한 중국병

中國病, 유교사상에 따른 묘소墓所에의 피지배, 장남 중시와 관료주의의 폐해, 근로동자勤勞者 천시 등에 원인이 있었으며, 고질적인 뇌물수수 풍조와 열등감이 한국인의 치부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미풍양속과 상치되는 시각과 편향적인 관점을 감안하면 일별할 만한 책이다.

배려配慮는 남에게 심려를 나누어 베푸는 것이다. 시기나 질투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배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촌이 손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흐뭇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효도 다음으로 큰 우애友愛의 덕목이다. 시기와 질투가 인성人性的 본능에 속한다면 우애나 배려는 인성의 교양에서 빚어지는 바일 것이다. 그리고 이 양자를 잘 융화融和하는 것이 동양철학 지고의 경지中庸中庸이 아닐까.

우리 국가사회는 시기와 갈등으로 영일寧日이 없다. 불신으로 날조된 유언비어가 늘 진실을 압도하고 때로 유린한다. 광우병과 천안함의 황당 괴담에 이은 한 연예인의 ‘악플’ 소동은 우리 국가사회의 기반을 흔들고 문화적 공론의 바탕을 부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우리 문중사회는 이러한 병리 현상에서 예외인가.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할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 질현이 고향膏에 들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 權海兆 편집위원



▲ 합천군 대병면 성리의 삼산재 앞에서 감정공의 유허비와 세거비가 제막되었다. <관련기사 0면>



▲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부정공파 이우당종택에서 기신제 참관을 겸한 전통 상제례문화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관련기사 0면>

국문판 전산·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의 2010년판이 홈페이지에 올랐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보사 홈페이지 www.andongkwon.or.kr 접속하여 족보(대동보)로 들어오시면 회원독자는 능동추추 독자 고유번호로는 무료, 일반열람자는 유료로 국문판전산인터넷 안동권씨대동세보의 화면이 열립니다.

● 전산대동보 열람 방법

- ① 인터넷internet 익스플로러explorer 주소란에 www.andongkwon.or.kr 입력하면 안동권씨종보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대동세보의 편찬운영과 수단접수에 관해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글판 대동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 ② 이때 능동추추의 독자회원은 J123...로 나가는 독자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족보화면이 열리고, 비독자회원은 유료결제 절차를 거치면 화면이 열립니다.
- ③ 다시 ‘대동보 열람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글판대동보 쉽게 보는 방법’을 클릭하시면 PDF파일을 읽기 위한 어도비acrobat리더 설치법과 대동보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액로벳 리더는 족보 열람에 앞서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해야

- 합니다.
- ④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목차 구성을 하는 ‘책갈피’ 이용법도 나와 있습니다. ‘대동보보기’ 화면에서 ‘한글판 대동보 정본’을 클릭하면 PDF파일로 대동보의 내용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 ‘책갈피’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체를 확인하며 열람하며, 견상上(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과 견하下(아래로 내려가 보기)를 이용해 앞쪽으로 조상은 시조 할아버님까지, 뒤쪽으로 후손은 본인에서 본인의 아들·손자까지 오르내리며 찾아볼 수 있습니다.
- ⑤ 다만 화면상으로는 열람하시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글판안동권씨전산대동세보에는 고유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본사 : 경북 안동시 북문동 24-1 태사묘 서재 · 760-120 전화 054)857-7714
서울분사 : 서울 중로구 필운동 285-5 파크뷰타워 80호 · 110-044 전화 02)723-4480 732-9139